

# 美, 이스라엘에 24조 규모 전투기 50대 판매 방침

### 가자전쟁 이후 최대...민간인 살상 최소와 상충하지 않아 격렬한 비판 가능성...폭탄 등 살상무기 판매 100건 넘어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이스라엘에 조만간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지원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F-15 전투기 50대를 판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의회에 관련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판매 규모는 180억달러(약 24조4천억원)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정밀 유도 탄약의 신규 판매 역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 같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 판매 결정은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놓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며 "바이든 행정부 관

리에서조차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3만2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최근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에 100건이 넘는 무기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비공개로 추진됐다.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에도 이스라엘에 2천파운드급 MK84 폭탄 1천800발과 500파운드급 MK82 폭탄 500발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스라엘에 F-35A 전투기 25대와 엔진 등 25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



성조기 불태우는 이란인들 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고위 간부 등 여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란 테헤란에서 시민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동 지역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AFP=연합뉴스

는 계획도 승인됐다. 이번 F-15 전투기 판매를 놓고는 의회에서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비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기

이전에는 무기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전쟁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중동계 및 진보, 젊은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지지층의 분열에 직면해야 했다.

실제 미시간주를 비롯해 아랍계가 다수 거주하는 일부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토의 의미로 '지지 후회 없음'에 투표한 표가 무더기로 쏟아진 바 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놓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 미국의 가리슨에 이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연합뉴스



## 13명 사망...러시아 붕괴 광산 구조 종료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서 붕괴한 광산에 대한 구조 작업이 2주 만에 종료됐다. 이 광산에는 광부 13명이 갇혀 있었지만 끝내 구조하지 못했다.

포크롭스키 광산회사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2주 전 무너진 피오네르 광산에 대한 구조 작전이 반복되는 붕괴 위험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광부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까지 굴을 뚫으나 암석과 물로 가득 찬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몰된 광부 1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 작전을 계속하면 구조대원과 광산 직원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

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 채굴 작업이 이뤄지던 피오네르 광산은 지난달 18일 무너졌다. 마지막 으로 기록된 광부 13명의 위치는 지하 47m였다.

아무르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0명 이상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지난 20일부터는 광부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하를 향해 5개의 구멍을 뚫었지만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공간에 암석, 점토, 얼음, 물만 가득했다.

포크롭스키 광산회사는 사망한 광부의 유족들에게 위로·보상금 등 충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 中, 친트럼프 성향 가짜 계정 운영...美 대선 '작심' 개입

### 중국 정부 연계 계정, '마가' 미국인 행세 바이든 비방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정보 계정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복수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를 인용,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마가(MAGA)' 신봉자를 사칭하는 중국과 연계된 상당수 가짜 계정이 각

종 음모론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글을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당선에 의해 할리우드 출신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대선 판을 뒤 흔들었던 러시아의 활동과 유사하게 중국 정부 역시 바이든 행정부 흔들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의 한 가짜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경우 '아버지, 남편, 아들'로 본인을 소개한 뒤 바이든 대통령의 나

이를 조롱하며, 최수복을 입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이미지를 유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탄주의 소아성애자라는 거짓 비방을 활발하게 퍼나르고 있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에 따르면 이들 계정은 중국 정부의 가짜 정보 캠페인인 '스팸플라주(spamouflage)'와 연계돼 있으며, 일부 계정의 경우 과거 중국어로 친중국 성향의 포스트를 게시했지만, 최근 미국인으로 위장해 영어 글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개 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반미 성향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비인종 페이와 계정은 170개에 달한다.

NYT는 "이 같은 노력은 실제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과거 중국의 공작과 비교해 한층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보다는 각종 혐악한 언사에도 트럼프 당선이었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190만명 팔로워' 베네수엘라 여행 유튜브 체포

미주 대륙에서 주로 활동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인기 여행 유튜브가 모국에서 테러 활동과 관련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

은 오스카 알레한드로 페레스(37)에 대한 예방적 구금을 법원에 요청했다"며 "그는 차카이토에 있는 금융기관 건물 폭파를 독려하는 동영상은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어떤 동영상은 어디에 게시했는

지등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페레스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유튜브이자 인플루언서로 꼽힌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90만명에 달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8만명에 육박한다.

앞서 페레스는 베네수엘라 남부 카나리아 국립공원에 가족과 함께 가려

다 전날 수도 카라카스 인근 마이케티아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3연임 여부로 관심을 끄는 7월 대선을 앞두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음모와 각종 범죄예비 등 혐의로 체포·구금되는 피의자들이 최근 몇 주간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